



4월9일  
금요일

# 보도자료

생명의 땅 으뜸진남  
Land of Life, Best Jeonnam

실국	농축산식품국	과장	박철승	팀장	정원진	☎	286-6470
----	----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	----------

## 전남도, 벼 적정재배면적 확보를 통해 쌀 수급안정 기반 다져 - 153천ha, 718천톤 생산 계획, 보급종 공급·농기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-

전남도는 2021년 벼 재배목표면적을 전년보다 3천ha 줄어든 153천ha로 설정하고 쌀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벼 적정재배면적은 쌀생산량 및 1인당 쌀 소비량, 인구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매년 설정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전국 약 700천ha의 목표면적을 설정함에 따라 전남 재배면적은 전국대비 22%를 차지하게 된다.

벼 적정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전남도에서는 우선 도 자체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1,500ha에서 벼 대신 콩, 일반작물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ha당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.

또한 쌀 품질관리를 위해 정부보급종 공급을 확대하고, 보급종 20kg 1포대당 1만원 추가지원 등 총 19억원의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을 통해 농가부담을 줄이고 있다.

농가선호도가 높은 새청무가 올해부터 정부보급종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, 내년에는 보급종 공급률을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60%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.

또한 벼 재배농가의 규모화·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67개소의 식량작물공동경영체를 선정하여 총 100억원의 사업비로 전문컨설팅 및 시설·장비,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 도서·산간지역 등 영농여건을 감안한 소규모 들녘경영체 5개소를 선정하여 총 15억원으로 지역맞춤형 경영체를 육성지원하고 있다.

전라남도 식량원예과 박철승 과장은 “쌀값 상승으로 인해 벼 재배의향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”면서 “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재배면적 확보, 재배기술지원 등과 함께 영농현장 동향을 긴밀히 파악해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